

## 나성영락교회 50주년 새로운 '부흥' 향해 도약

창립 50주년을 맞은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지난 5일, 반세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창립기념주일 예배는 나성영락교회 2대 담임이었던 박희민 목사와 3대 담임 립형천 목사가 각각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서 설교하며 교회의 희년을 축하했다.

“주님의 마음을 시연케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희민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자고 축하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온 교인들이 하나로 주 앞에 충성하며 힘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길 바란다”며 “흠어진 자들이 모이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LA와 미주,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바란다”고 설교했다.

2부 예배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희년”(눅 4:14-21)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립형천 목사는 나성영락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주안장로교회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뻐하는 나성영락교회 성도들 ©기독일보

주승중 목사,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등 한국 교계에서도 영상으로 나성영락교회의 50주년을 축하하며 나성영락교회가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넘어 온 세계에 흠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교회들과 희년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교회로 쓰임 받기를 권면했다.

또 영 김연방하원의원, 미셸 바스틸 연방하원의원,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의원, 존 리 LA 시의원, 캐런 베스 LA 시장, 데이브 민 캘

리포니아 상원의원,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 등 정치 인사들도 나성영락교회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진행된 은퇴 및 임직식에서는 장로·집사·권사 등 25명이 임직하고, 장로·집사·권사 등 23명이 은퇴했다.

은퇴 및 임직식은 박은성 목사의 집례로 조계문 장로의 기도과 황이영 권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 서정은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총장)가 “존귀한 직분”(딤후1:12-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은퇴패 수여와 임직 선포에 이어 김지훈 목사(동양선교회)와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가 임직자와 교우들에게 각각 축사와 권면을 각각 전했다. 장지현 장로가 임직자들을 대표로 답사를 전했다. 이날 은퇴 및 임직식은 박은성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 美 목회자 81% “1년 뒤 예배? 온·오프라인 혼합”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재개했지만, 대면 예배만이 미래 교회의 모습이라고 답한 미국의 목회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신앙 기반 비영리 결제회사인 푸시페이(Pushpay)가 발표한 “2023년 교회 기술 현황 보고서”에서 목회자의 대다수는 다양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는 혼합형(Hybrid) 모델을 교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봤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이 연구에서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교회의 디지털 트렌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전역의 기독교 교회 지도자 2,200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그들 중 3분의 2는 연간 예산이 100만 달러 미만의 교회를 맡고 있다.

“12개월 후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라는 질문에 28%는 “대면 예배가 유일한 모델”이라고 답한 반면, 4명 중 1명(25%)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세계(metaverse)에

서 만나게 될 것”이라 답했다.

예배에 대해 응답자의 20%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81%는 “혼합형 모델을 포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의 89%는 혼합형 모델을 사용해 예배를 드렸으며, 대면 예배만 드린 교회는 10곳 중 1곳(10%)에 불과했다.

또 94%는 기술에 대해 “목회에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53%는 기술과 관련해 그들의 사역을 “진보적(progressive)”이라

고 정의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투자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연구진은 “놀랍게도 수백 명의 응답자가 한 가지 대신, 두 개 이상의 답변을 선택했다. 이는 그들의 사역이 1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며 “그 정도의 의심은 정보에 입각한 기술적 결정을 내리는 교회의 능력을 저해한다.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채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에 기반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기에 많은 사역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현금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우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로프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퍼!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크리안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 촬영을 일러드립니다.



# 더 새로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더 힐 교회' 창립예배

### 팬데믹 가운데 시작돼 창립예배로 힘찬 출발 전 세대 예배 추구

지난 해 코비드 팬데믹의 끝을 지나며 세워진 교회가 있다. 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시기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바로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한 더 힐 교회(The Hill Church)다. 지난 해 3월 6일 전우진 담임목사의 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1년이 지난 지난 5일, 창립 1주년을 맞아 드디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미국 남침례 교단에 소속된 더 힐 교회의 창립예배에는 더 힐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지방회 소속 목회자들 및 미주 지역 목회자와 선교사들, 미주장신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대거 참석해 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전우진 담임목사는 “하나님을 알고, 참된 예배자 되어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더 새로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변질 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 되길 원한다”고 창립예배 소감을 전했다.



©더 힐 교회 창립예배

예배는 더 힐 교회의 전우진 목사의 인도로 현 미국 남침례교단 수석 부회장이자 애너하임 제일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인 빅터 채야서리소본(Victor Chayasirisobhon)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애너하임 임마누엘 침례

교회의 한충호 담임 목사가 예배소서 2:19-22을 바탕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으며, 더 힐 교회의 흥선희 권사의 ‘선한 능력으로’ 라는 특별 찬양 연주가 이어졌다. 이후 더 힐 교회의 청년부 회장

인 박태준 청년의 담임 목사 소개가 있었고, 이 후 트루 라이트 미션 파운데이션의 김송식 목사의 축사 및 라미라다 정기정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저스 이미지 소사이어티의 대표이신 박종기 목사의 축도로 창립예배는 은혜롭게 마쳤다.

더 힐 교회 담임 목사인 전우진 목사는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약 15년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미국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마친 후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아름다운 동산교회 전임 전도사, 영원한 기쁨교회 예배 설교 담당 부목사로 사역하였다.

더 힐 교회는 전 세대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다. 따라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는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아이들 예배는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장년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와 주일 오전 9시, 11시에 드려진다.

주소는 1538 W. Commonwealth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이고 문의는 이메일 davidjun@octhehill.org나 전화 714-869-3905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효사랑선교회 제10회 '효 글짓기 및 그림 공모전' 개최

### '나의 아빠(엄마)를 하나님께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제 10회 '효 글짓기 및 그림 공모전' 개최한다.

주최측은 매년 특별한 주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해 오고 있다. 지난 해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크리스찬 정체성이 분명한 정치인이 86명의 모든 참가자를 비롯한 수상자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올 해 공모전 주제는 '나의 아빠(엄마)를 하나님께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How would you introduce your father or mother to God?)' 다.

시상 내역은 대상 2명(각 부분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헤이븐상(11 학년에 한함)으로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지

난 해와 같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크리스찬 정체성이 분명한 한인 정치인이 시상하게 된다.

남加州 지역 뿐만 아니라 미주 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히 두 청소년의 작품이 선정될 경우 상장과 상금도 집으로 우송해 준다.

참가 대상은 Kindergarten 부터 12학년까지 선착순으로 100명이 참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시상식은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축하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https://www.hyosarangusa.org>) 혹은 QR코드로 온라인 참가신청서에 접속할 수 있다.

접수 시 온라인 신청서에서 글짓기의 경우에는 Letter Size, 12pt, PDF Format으로 작성해서 업로드 하면 된다. 그림 참가의 경우에는 Crayon, Watercolor, Acrylic Paint, etc. 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 후 작품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하고 실제 작품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김민선 기자 문의 714-670-8004

##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영이중언어과정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남加州 온타리오로 이전한 게이트웨이신학교 전경 ©www.gs.edu

### 유학생은 6월 1일, 미국 거주자는 7월 15일까지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2023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영이중언어과정은 한국어와 영어로 목회학 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그리고 선교학석사(MGE)를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된다.

학교측은 이를 통해 이민교회와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대면,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가을학기 등록마감일은 유학생은 6월 1일, 미국 거주자는 7월 15일까지다. 문의는 909-687-1649 (EXT. 1320) 혹은 KEB@GS.Edu [www.gs.edu/keb](http://www.gs.edu/keb)

한편,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은 북미주 최고 학력인증기관인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WASCUC(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of Commission)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민선 기자

# 제10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

## "HYO" (Filial Piety) Writing & Art Contest

주제: '나의 아빠(엄마)를 하나님께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How would you introduce your father or mother to God?

**접수기간**  
(Acceptance Period) **March 10, 2023 ~ March 31, 2023**  
(2023년 3월 31일 접수 마감)

**시상식 날짜 및 장소**  
(Award Ceremony) **하나교회 / 04/22/23 Sat. 2PM**  
(79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접수대상

Kindergarten ~ 12th grade

참가비

\$20 (per work)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or Venmo : Hyosarangus Mission)



수상상금

대상 : 2명 \$500 (글짓기 1명, 그림 1명) 최우수상 : 4명 \$300 (글짓기 2명, 그림 2명) 우수상 : 6명 (글짓기 3명, 그림 3명 \$200), 헤이븐 장학상 : 11학년 전원

접수방법



\*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효사랑선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 글짓기: 3 Page (letter Size, 12pt)  
\* 그림: 14" x 17" (Crayon, Watercolor, Acrylic Paint, etc)

나의 아빠(엄마)를 하나님께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문의전화 | (714) 670-8004, 714-833-2710, 김영찬 목사 (562) 833-5520  
홈페이지 | [www.hyosarangusa.org](http://www.hyosarangusa.org) E-mail | [hyosarangus@gmail.com](mailto:hyosarangus@gmail.com)  
주소 |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에즈베리 그 부흥의 현장을 가다

## 강태광 목사의 에즈베리 부흥 현장 탐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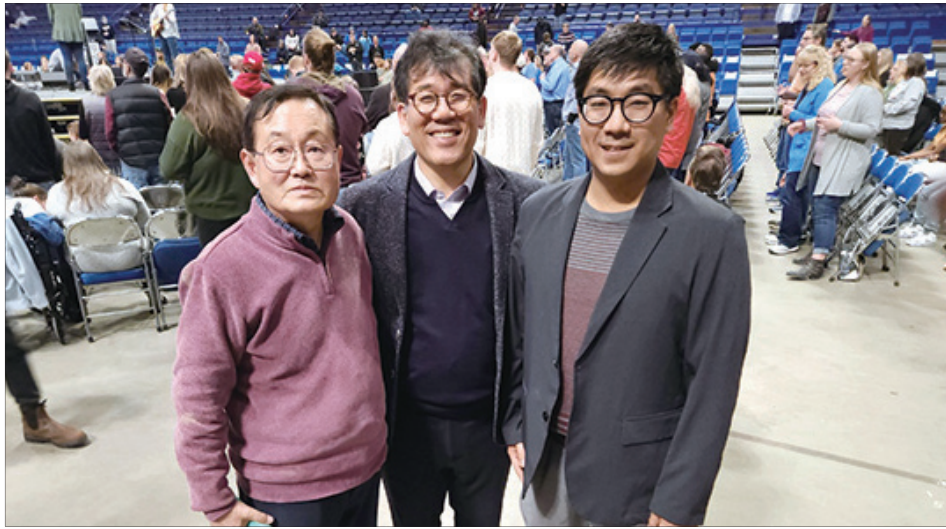
지난 2월 8일 켈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 (Asbury University) 채플 후 기도 모임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학교 채플을 마치고 선포된 메시지(하나님의 사랑)를 품고 기도하던 19명의 학생들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18일간의 연속 집회! 강태광 목사(청교도 신앙회복운동본부 사무총장, 월드쉐어 USA 대표)가 그 현장을 방문해 그 역사가 남긴 교훈과 적용점을 정리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소식 듣고 달려온 학생과 교수 등에 의해 찬양과 기도 간증의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1500석의 강당은 가득 찼고, 소식을 듣고 미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8시간 9시간 기다리며 기도회에 동참했다. 인파가 몰려 강당이 차고 넘치자 길 건너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채플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기도 모임이 생겼고 비상한 집회가 계속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사운영의 마비와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교 당국은 2월 24일 채플을 마지막으로 연속 집회를 마감한다고 선언했다.

### ◆ 왜 에즈베리인가?

최근 미국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금번 부흥의 현장에 몰려온 인파를 보며 미국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임했을까? 에즈베리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첫째로 에즈베리 대학교의 영적 유산 혹은 영적 전통이 힘이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20세기 초부터 8번에 강력한 성령님 임재를 경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에 참석하고 그 상황을 소개하는 김하진 목사(오른쪽, 에즈베리 신학 대학원 박사 과정 중)와 부흥현장을 방문한 강태광 목사(가운데)와 강순영 목사(왼쪽)

험했다. 에즈베리 대학교 출신들은 늘 모교의 후배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특히 지난 1970년 2월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수, 목회자, 선교사가 되어 모교 부흥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둘째로 에즈베리 대학교 현재 구성원의 기도다. 에즈베리 대학교에는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달리 많았다. 에즈베리 대학교 교육학 바바라 해밀턴(Baraba Hamilton) 교수는 수년 전부터 교수들에게 학교 부흥을 위한 기도 요청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며 기도운동을 주도했고, 부흥을 위한 학생 기도모임이 다수 있다.

셋째는 에즈베리 대학교 지역의 기도다. 에즈베리가 위치한 윌모어(Wilmore)는 지역 주민 90%가 기독교 신자다. 이들은 에즈베리 부흥 역사(歷史)의 증인들이다. 이들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해 왔다. 금번 부흥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홍박사(Hong Too Leow)는 말레이시아신학교 교수였는데 안식년에 에즈베리 방문 교수로 왔다가 부흥에 대한 환상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에즈베리 지역에

서 수년간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부흥을 위한 그의 기도는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

금번에 놀라운 부흥현장에 찾아온 5만여 명의 외부 손님들을 먹이고 재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6천 여명의 지역 주민이 사는 윌모어에는 식당이나 호텔이 여의치 않다. 지역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방문객 성도들을 도왔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소원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 ◆ 에즈베리가 품고 있는 영적 전통

에즈베리 대학교는 20세기와 21세기에 크고 작은 부흥을 경험했다. 그 부흥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05년 2월에 남자 기숙사에서 시작되어 회개 운동이 전개되었고, 1908년 2월 채플 예배 시간에 시작된 부흥이 2주간 지속되어 기도와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었다. 1921년 2월 학교 부흥회 마지막 날 시작된 기도 부흥이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어졌고 3일간 기도운동으로 지속되었다. 1950년 한 학생의 간증으로 회개와 승리의 부흥이 118시간 연속 50,000명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1958년 3월 한 학생의 금식으로 채플에서 63시간 기도운동으로 이어졌고, 1970년 2월 3일 채플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시간에 청중의 간증을 유도하여 많은 사람이 간증하려고 줄을 서고 144시간 지속되는 기도와 간증집회가 이루어졌다. 이 결과로 2,000여 명이 지역교회에서 간증하였으며 130개 대학 캠퍼스에서 부흥의 역사가 이어졌다. 1992년 연례 성경집회에서 한 학생의 회개로부터 127시간의 찬양과 기도로 이어졌고 2006년 2월 한 학생의 채플 인도로 4일간의 연속적인 예배, 기도, 찬양이 이어졌다.

금번 2월에 있었던 에즈베리 부흥이 21세기 미국에서 경험한 가장 강력한 역사로 이해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의 불길은 많은 대학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을 방문한 200여 개 미국 대학 캠퍼스 사역자들과 학생대표들은 각 대학교에서 기도, 찬양, 간증 그리고 말씀이 어우러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동남부 텍사스, 테네시, 앨라배마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의 등의 기독교 명문대학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적용 가능한 교훈을 정리하면, 우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0세기에 부흥을 경험한 에즈베리 대학교 동문들을 포함한 많은 기도자의 기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에즈베리 대학 당국이 교수하는 예배 원칙이다. 에즈베리 대학교처럼 대학에서 채플을 고수하는 학교들이 금번에도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고 있다. 셋째는 지역교회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다. 금번 탐방에서 만난 많은 관계자는 하나 같이 윌모어(Wilmore) 지역 주민의 호응과 협조 없이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교회나 해외 한인교회들이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 이훈구 장로 신간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 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한 한 아버지의 교육과 인생 이야기

이훈구 장로(G2G 선교회 대표)가 최근 “크리스천 자녀 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를 출간했다.

자녀들에게 물려 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책에서 세 자녀의 양육과 대학 진학, 결혼 과정들을 들려준다. 특히 세 자녀를 명문대학교(하버드, 코넬, 터프츠)에 진학시키고 20대 중반쯤 결혼시킨 이야

기도 상세하게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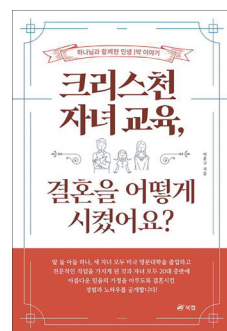
책의 후반부에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45세에 스스로 퇴직을 하고, 그 후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과 사업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또 사업 아이템 선정 방법 방법과 18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등 노후 준비에 답답해 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조언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취미 활동과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도 나누고 있다. 집 뒷마당에서 새, 닭, 오리, 거북이 등을 키우는 이야기들은 은퇴 후에 전원생활의 낭만을 잘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나온 이윤의 일부를 가지고 ‘G2G 선교회’라는 가족 중심의 자비량 선교회를 만들었다. G2G 선교회는 미국 비영리 단체로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들을 지원하고, 월드 비전을 통해 어린이를 돕고 있다.

이훈구 장로는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



학과와 영남대학교 대학원 기계설계 공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하여 TV 부품 설계를 담당하였고, 디스플레이 사업 본부를 거쳐 2000년 2월 미국 주재원으로 LG전자 미국/멕시코 레이노사법인에서 근무하며 총 18년 5개월 동안 일했다.

2005년에 G2G WIRELESS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개인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현재 23년째 미국 텍사스 남부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 휴스턴의 남부 개혁 대학 및 신학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G2G 선교회 미국 비영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b>원서접수</b>	2022년 11월 1일 마감
<b>지원자격</b>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b>수업기간</b>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b>수업장소</b>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mailto: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 OC교계 주요단체 연합해 조찬기도회 가져

###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23년 3월 정기 조찬기도회 겸 OC 교계단체연합 특별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4일(토)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2023년 3월 정기 조찬기도회 겸 OC 교계단체연합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OC지역 주요 기독교 단체, OC교협, OC목사회, OCK한인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등이 연합회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의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OC교협 회장 심상은 목사는 “코로나가 지나나 싶더니 튀르키예 지진 등 세계적으로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동성에 문제, 차세대 교육문제 등 잠시 한눈 팔 겨를도 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매월 조찬기도회를 모범적으로 드리고 있어 우리 교계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기도로 힘을 보태고 서로의 사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했는데, 전도회연합회에서 흔쾌히 받아들여 모이게 됐다”고 연합기도회를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화로 영재선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OC교협 증경회장 김기동 목사가 “성령충만과 부흥”(눅 4:18-19)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기동 목사는 “교계 단체가 연합사역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충만이다. 성령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3월 연합기도회

충만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기쁨부음의 역사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설교하고 “연합운동을 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성령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권면했다.

이어진 합심기도에서 참석자들은 6개의 헌안에 대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나와 기도제목에 대해 대표기도했다.

OC교협 부회장 박재만 목사는 “한국과 미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대표회장 이선자 목사는 튀르키예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OC목사회장 이원석 목사는 해외 한인 선교사를 위해, OC장로협의회장 김용진 장로는 OC 지역사회와 교회, 목회자를 위해, OC여성목사회장 이경신 목사는 OC교계 단체와 연합사역을 위

해, 끝으로 연합회 이사 전홍 장로는 “연합회 사역과 회원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다.

연합회가 올 해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교회 및 교계소식”을 나누는 2부 순서에서는 OC지역 교계 단체장이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방송인 윤우경 연합회 이사장이 맡고 각 단체장과 The Refounder's United 차세대살리기운동 김수연 대표도 참석했다. 특별게스트로 참석한 김수연 대표는 The Refounder's United의 취지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하고 “지금의 공교육은 엉망진창이라고 할 만큼 무너졌다. 믿는 이들의 기도가 절실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삶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출연 단체장들은 단체의 설립 취지와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최근 현안으로 OC교협 심상은 목사는 튀르키예 이재민돕기 긴급구호기금 모금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되도록 빠른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모아진 성금은 1볼도 빠지지 않고, 운영비나 부대비용은 교계연합회에서 지불해, 후원한 성금 액수 그대로 현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교회, 기관이나 기업체 등 어떤 형태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긴급구호 성금 모금은 OC교협으로 단일화 했고,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회, 감사한인교회가 현지를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전화는 OC교협 심상은 목사(714-722-4805), 체크는 갈보리선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로 보내고 Payto: KCCOC 와 “터키 시리아 구제헌금”이라고 쓰면 된다.

한편,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아침 8시에 애너하임에 있는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정기 조찬기도회를 갖고, 기독교 평신도의 신앙향상과 친목도모, 교계연합과 교회협력,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OC인근지역의 평신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널리 알리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매월 열리는 조찬기도회 설교는 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김민선 기자

# GBC, 14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복구위해 공개모금 생방송

### 2023년 나눔On 캠페인

남가주 한인 교계의 다리 역할을 하는 GBC와 함께 작은 나눔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밝히는 나눔무브먼트를 만든다.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전국적인 재난상황 속 커뮤니티 회복을 지원하는 'GBC(미주복음방송) 나눔On 캠페인'은 2020년 5월, 팬데믹 가운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56만불 상당의 물품, 현금을 후원 받아 우크라이나 난민, 노인, 장애인, 선교사, 홈리스 등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해 생필품, 생계보조금, 사역지원금을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 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유학생, 서류 미비자 등 개인 및 커뮤니티 회복과 홈리스, 장애인, 노인 등 꾸준히 전문적인 사역을 해온 자선

단체 '퍼스트펄킨'의 사역을 지원하여 그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한끼 식사를 무료로 나누는 만나말한나눔 등 교계 사역 단체 와도 힘 력하여 폭넓게 지원하였다.

작년에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에 놓인 난민들과 자선단체 9곳에 사역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 나눔 사역이 지속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등 매년 남가주 교계 및 신앙공동체가 협력하여 각 시기마다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계속되는 '2023년 GBC 나눔On 캠페인'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지속되는 전쟁상황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장애인, 결혼가정, 홈리스, 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선단체들 또한 연속 지

원할 예정이다.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3월 14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진행되는 '공개모금 생방송'을 가져 남가주 교계 커뮤니티가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0년 이상 커뮤니티 나눔 사역에 몸담았던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나눔On 캠페인은 매년 적절한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후원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전달되고 전액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

으며, 후원금 전달처를 찾기 어려운 개인 또는 교회, 단체는 나눔On캠페인에 후원하여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본 캠페인에 후원으로 동참을 희망할 경우, 아래 후원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다.

- [후원방법] - 전화후원 : 714-484-1190
- Paypal 후원 : 홈페이지(www.kgbc.com) 접속 > Donate(후원) 클릭 > Paypal 결제
- Venmo 후원 : @am1190kgbc
- [문의] nanum-on@kgbc.com

김민선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한국 개신교인 수 771만 추정... '가나안 성도' 226만

### 한목협, 2일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주요 결과 발표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 5,143만 명 중 771만 명(15.0%)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교회 출석자는 545만 명, 불출석자(가나안 성도)는 226만 명이다.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한목협)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9,182명을 대상으로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제5차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한목협은 이 조사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1998·2004·2012·2017·2023) 실시했다.

개신교 인구로 추정되는 771만 명은 지난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나온 개신교 인구 967만여 명(전체 인구 수의 19.7%)과 비교하면, 약 200만 명 줄어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개신교인 비율 15.0%는 그간 다섯 차례 조사 중 가장 낮은 것이다. 1998년 20.7%, 2004년 21.6%, 2012년 22.5%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20.3%로 떨어졌고 이번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개신교인 중 29.3%를 차지해 226만 명으로 추정된다. 29.3%는 2012년 조사

의 10.5%, 2017년 조사의 23.3%에서 각각 18.8%·6.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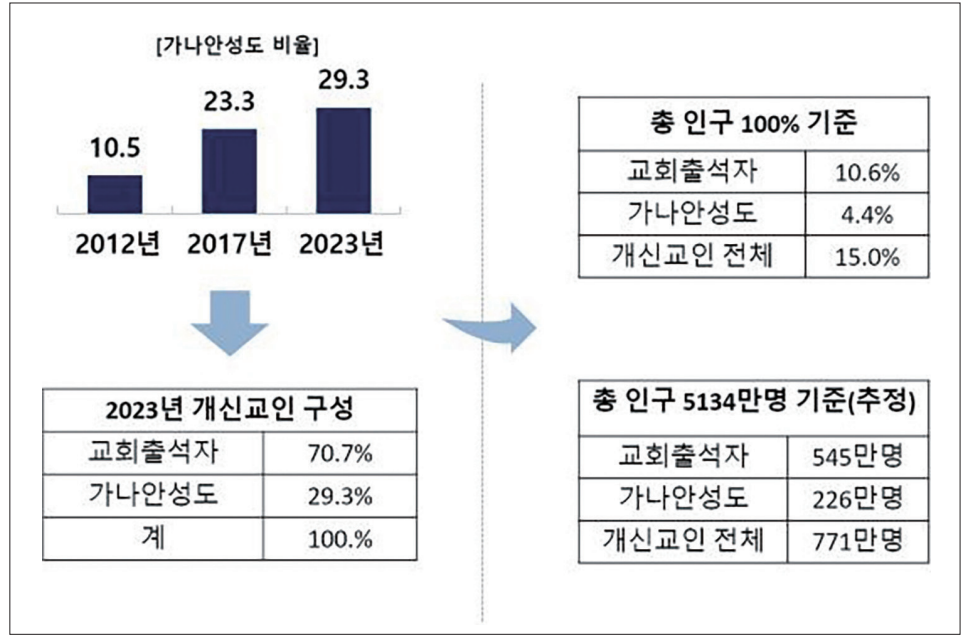
한목협은 "개신교인은 총인구 대비 감소하는 반면에 '가나안 성도'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종교인 36.6% 무종교인 63.4%... 종교인 감소 추세**  
개신교 15.0% 불교 16.3% 가톨릭 5.1% 개신교 내 이단 신자 수, 약 34만~66만 명 추정

또 이번 조사에서 종교인은 36.6% 무종교인은 63.4%로 나타났다. 한목협은 "2012년 이후로 종교인의 비율이 하락의 추세를 보이다가 17년 무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를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그 이후 2022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종교인의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종교별 비율은 개신교 15.0%, 불교 16.3%, 가톨릭 5.1%로 나타났다. 한목협은 "2012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3대 종교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실정"이라고 했다.

각 종교별 비율의 추이를 보면 개신교·불교·가톨릭 인구 비율은 △1998년 20.7%·23.5%·7.5% △2004년 21.6%·26.7%·8.2% △2012년 22.5%·22.1%·10.1% △2017



2023년 개신교인(교회 출석자·가나안 성도) 인구 추정 ©한목협

년 20.3%·19.6%·6.4% △2023년 15.0%·16.3%·5.1%다.

눈길을 끄는 조사도 있었다.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입니까?'라는 질문에, 6.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5.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목협은 "즉, 개신교 내 이단 비율은 최소 약 6%에서 최대 12%로 추정되며, 개신

교 교회 출석자를 545만 명으로 간주할 경우, 현재 개신교 내 이단 신자의 수는 최소 약 34만 명에서 최대 66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목협은 이번엔 조사 결과의 일부만 공개했으며, 전체 조사 결과는 추후에 있을 '2023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 출간 기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 한국 교계 연합기관 등, 일제히 '동성 결합' 판결 규탄

### "사실혼 아니지만, 사실혼이나 다름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2월 21일 '동성 결합 관계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참조했을 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성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부양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은 차별대우"라고 주장했다.

◆ "동성 결합, 배우자 될 수 없어"

교계 연합기관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를 제외하면 대부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23일 정서영 대표회장 취임으로 단체가 정상화된 후 첫 입장문을 이번



지난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판결 규탄에 할애했다.

한기총은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대법원도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판결했다"며 "동성 결합은 혼인의 관계가 될 수 없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억지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한이 아닌 월권"이라며 "대법원이 헌법과 판례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주기를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정확히 정의

하라"고 촉구했다.

◆ "자의적·편향적 법리 해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성 목사, 이하 한교연)도 23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했다. 민법도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동성 커플에게 부부와 같은 자격을 주라 할 수 있나. 이는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재판부도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실혼'이 아니지만 '사실혼'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을 '정서적·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다"며 "이런 논리와 사고를 지닌 법관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 "판결 법적 완결성 스스로 훼손"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교총)은 22일 "행정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단이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면서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고, 소수자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순 없다는 소신 발언까지 판결문에 덧붙임으로써, 판결의 법적 완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논평했다.

한교총은 "현행법의 해석에 전념해야 할 법원이 헌법 명문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실정법 국가인 우리나라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 아닐 수 없다"며 "다만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 美 뉴욕시장 “대법이 ‘공립학교 내 기도 금지’ 한 건 실수”

에릭 애덤스(Eric Adams) 미국 뉴욕시장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담대하게 신앙적 표현을 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내 기도를 대한 지지를 금지한 것은 실수”라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1년 전 신앙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사무소를 세운 바 있다.

지난 2월 28일 뉴욕 공립도서관 리셉션홀에서 열린 연례 종파 간 조찬 모임의 연설자로 나선 애덤스 시장은 “신앙 활동을 예배당 안에 제한함으로써 사회가 선을 위한 능력으로서 (신앙의) 힘을 부인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퀸즈의 사우스 자메이카에서 자랄 때 권투하는 법을 배웠는데, 링에 오를 때마다 싸움에서 졌다. 내 트레이너는 ‘에릭, 문제는 내가 훈련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링에 올라 가야 한다는 거야’라고 말해 줬다”고 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있는 일이다. 회당은 훈련장이다. 교회는 훈련장이다. 시크교 사원은 훈련장이다. 모스크는 훈련장이다. 당신은 훈련을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훈련장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병폐들은 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에 의해 나아질 수 있다. 우리는 가정 폭력의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 밖에서 기도할 때 학교에 총이 들어왔

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연례 모임을 분석할 때 반성해야 할 점은 ‘우리는 훈련장에서 최선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훈련장에 가져간 것을 실제 싸움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가?’이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1962년 ‘엔젤 대 비테일’(Engel v. Vitale) 사건에서 공립학교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는 기도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뉴욕 리젠트사회가 교육구에 추천한 22단어의 비종교적 기도문에 대한 논쟁으로 촉발됐다. 기도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의존성을 알고, 우리와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나라를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라고 돼 있다.

기도의 실행은 자발적이었고, 학생들은 부모의 서면 요청으로 기도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뉴욕 뉴하이드파크에 위치한 유니언프리스쿨구역(Union Free School District)이 권장 사항을 채택하자, 스티븐 이글(Steven Engel)을 포함한 일부 학부모들은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애덤스 시장은 “교육 체계에서 신앙을 밀어낸 일은 사람들이 매일 점점 더 합쳐야 하는 절망을 부채질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현대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경험하는 절망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대응한다. 우리는 너무 힘



에릭 애덤스(Eric Adams) 미국 뉴욕시장. ©뉴욕시 유튜브 영상 캡처

하고, 멋지고, 인스타그램 같고, 페이스북 같고, 트위터와 틱톡 같아져서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인간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우리는 혼잣말을 한다.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아이들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표를 찾는다. 아기가 갑자기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지금은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면 부모도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더 선

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그것은 또 자녀들에게 일정 수준의 믿음과 신념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상태는 몸이다. 교회는 마음이다. 몸에서 마음을 빼면 몸이 죽는다. 내가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앙을 분리할 수는 없다. 나는 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나는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하나님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 정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게 바로 나이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랬고 정부를 떠나서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특정 교단이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애덤스 시장은, 시장이 된 데 대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공로를 인정했다.

그는 “나는 신앙에 기반한 단체들 때문에 이곳에 왔다. 나 홀로 이 여정을 이끌어 온 것이 아님을 온 마음으로 굳게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망가진 이를 데려가다 그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의 시장으로 끌어올리겠다’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도시 뉴욕이, 시장이 하나님의 종된 곳을 선포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예배 모임’ 美 켄터키주 대학생들, 학교가 제재하자 “거리로”

### 애즈베리 부흥 여파로 모임 시작... 학교 측 “학생회관은 안 돼”

미국 애즈베리대학교(Asbury University)의 부흥을 계기로 예배 모임을 조직하려 했던 켄터키주 소재 한 대학교 학생들이, 모임 규칙을 두고 학교 관계자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버빌유니온칼리지(Union College of Barbourville) 소속 대학생 15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지난달 24일부터 캠퍼스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여기에 약 15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게 됐다.

Fox56은 “그 모임이 시작되자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학생회관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고 통보했다. 모임이 상당히 커지고 학생이 아닌 이들과 동참하기 시작하자, 지도부는 ‘학생이 아닌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생회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행사의 주최측은 학교 지도부의 이러한 조



미국 켄터키주 애즈베리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바버빌 유니온칼리지 학생들이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Fox56 유튜브 영상 캡처

건을 거부하고, 대신 지역 거리로 예배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한 학생은 Fox56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계속 절차에 대해서만 말했다”며 “모임을 만든 학생들은 그 같은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눈에는 (이 예배 모임

이) 10~15명이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Fox56과 인터뷰했던 또 다른 학생은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확실히 캠퍼스에서 이 모임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기도하는 동아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대화했다”고 했다.

이 학교의 마르시아 호킨스(Marcia

Hawkins) 총장은 2월 24일 성명을 내고 “종교나 신념에 관계 없이 모두를 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호킨스 총장은 “캠퍼스에서 사역이나 종교 활동에 대한 모든 제안은 영적생활국(Office of Spiritual Life)에서 받고 있다”며 “이 곳에서 캠퍼스 사역자의 지침에 따라 자료, 공간, 광고 또는 기타 자원들을 사용해 활동하는 데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아 검토한 후 그 방법을 결정한다”고 했다.

이 예배 모임에 대해 호킨스 총장은 “학생들에게 캠퍼스 사역자를 방문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달하라고 권고했다. 그들은 학생 대표와 대학 총장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캠퍼스 사역자를 만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조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1879년에 설립된 유니언칼리지는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인 연합감리교회와 제휴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 영화 ‘예수 혁명’, 美 주말 박스오피스 3위

미국에서 60년대와 70년대 일어났던 부흥을 강조한 신앙 영화인 ‘예수 혁명’이 개봉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이 영화는 이로써 지금까지 약 1,150만 달러(약 151억 원)를 벌어들이며 예상 수익인 600~700만 달러(약 79~약 93억 원)의 2배 가까이 기록 중이다.

존 어윈과 브렌트 맥코클(Brent McCorkle)이 제작하고 켈시 그래머(Kelsey Grammer), 조나단 루미(Jonathan Roumie), 조엘 커티니(Joel Courtney)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1970년대 서부 해안에서 진리와 삶의 의미를 찾던 젊은 청년 그렉 로리의 발자취를 그리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전도사 로니 프리스비를 만나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교회로 초대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간다. 로리는 현재 미국의 대형교회인 하베스트교회의 담임이 됐다.

이 영화는 로튼토마토와 A+시네마스코어에서 99% 관객 점수를 받았다.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A+시네마스코어에서 4개의 별점을 얻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강혜진 기자

## 갤럽 “美 LGBT 인구,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 애즈베리 부흥 여파로 모임 시작... 학교 측 “학생회관은 안 돼”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 자신을 LGBT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 22일 미국 성인 10,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LGBT 커뮤니티에 관한 자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1%p였으며, 584명의 LGBT 응답자의 경우 전체 표본오차는 ±1%p, 신뢰수준은 95%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신을 LGBT라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은 2021년 7.1%에서 2022년 7.2%로 증가했다. 이는 갤럽이 LGBT 인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해인 2020년 5.6%, 2012년 3.5%보다 늘어난 것이다.

1997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성인들로 정의되는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자신을 LGBT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Z세대의 13.1%는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3.4%는 게이라고, 2.2%는 레즈비언이라고, 1.9%는 트랜스젠더라고, 1.5%는 ‘기타 LGBT’ 범주에 속한다고 밝히는 등, 총



동성애 깃발. ©Unsplash

19.7%가 자신을 LGBT 자커뮤니티의 일부라고 했다.

LGBT 커뮤니티에 속한 성인의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감소했는데,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는 11.3%, X세대(1965년~1980년생)는 3.3%, 베이비부머 세대(1946년~1964년생)는 2.7%, 침묵세대(1946년 이전 태생)는 1.7%였다.

갤럽의 수석 편집자 제프리 M. 존스(Jeffrey M. Jones)는 보고서에서 “나이 든 성인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이성애자가 아닌 다른 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 전체 성인 중에서 LGBT 비율은 향

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래에 성인이 되는 젊은이들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보다 자신을 LGBT로 인식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갤럽의 이번 조사 결과는 월튼가족재단(Walton Family Foundation) 및 머머레이션(Murmuration)이 소셜스피어(Social-Sphere)와 함께 실시한 ‘Z세대 선거 후 리서치’(Gen Z Post Election Research) 여론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일치한다.

이달 초 발표된 이 여론조사는 성인을 비롯해 15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했다. Z세대 응답자의 경우, 75%가 자신을 ‘이성애자 또는 스트레이트(이성애자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으며, 나이 든 성인 응답자의 경우는 92%가 그렇기 답했다.

또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여기지 않는 Z세대가 채택한 가장 일반적인 정체성은 양성애자(9%), ‘기타 퀴어 정체’(4%), ‘트랜스젠더 또는 난바이너리’(4%), 게이(2%) 및 레즈비언(1%) 등이었다.

갤럽이 2022년에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LGBT라고 밝힌 이들 중 대다수는 양성애자(58.2%)였으며, 그 다음이 게이(20.2%), 레즈비언(13.4%)이었다.

김진영 기자





# 태양광, 솔라!!

##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PG&E, SCE 및 SDG&E 전기를 사용하는)  
솔라를 설치 할 수 있는

### 교회

### 마지막 기회!!

### 3월 15일 까지

타사대비

### 30% 저렴하게 설치!!

관련기사보기>



### 전기세가 11달러?!

### 2023년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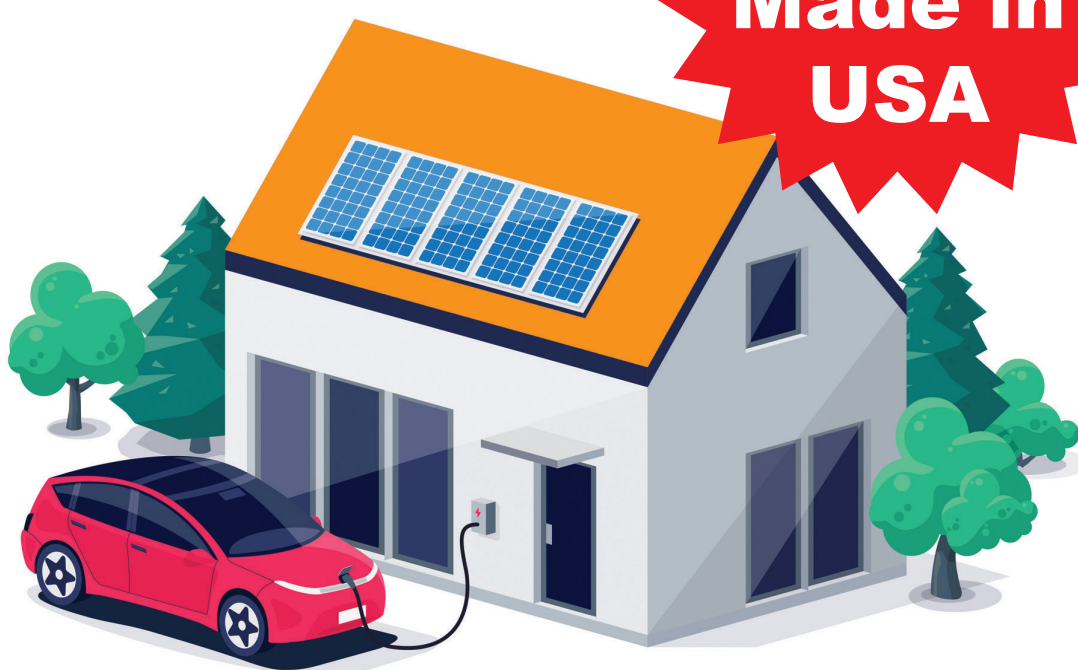
###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



###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소개 해 주시면 500불을 드립니다

### 213-500-8000 714-702-0151

CELLSPARTNE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현장영상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육과 이면의 삶을 책임지며, 이면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교차)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오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참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금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도모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美 일반 학교서도 예배 모임 불붙어... 에즈베리 부흥 여파



2월 웨스턴켄터키대학교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모습. ©토마스 W. 위클리

미국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 예배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Bowling Green(웨스턴켄터키대학교(Western Kentucky University, 이하 WKU) 학생들은 최근 캠퍼스의 메인 잔디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간증을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다.

WKU 침례교 캠퍼스 사역 목회자인 토미 존슨(Tommy Johnson)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임은 에즈베리의 부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우리는 WKU 캠퍼스에서 에즈베리의 파급 효과를 봤다. WKU 여러 학생들이 에즈베리 예배에 참석했고, 그들 중 일부는 WKU 캠퍼스 예배당에서 기도와 예배를 위해 모였으며, 그 날 밤 다른 학생들도 초대했다"고 했다.

또 "에즈베리대학교의 예배 모임에 참석한 학생 리더 중 한 명이 캠퍼스와 교회 사역의 여러 리더들을 초대해 캠퍼스 공예배 및 기도 모임을 갖고자 한다"고 했다.

존슨 목사는 "전국 대학생 기도의 날 예배 모임도 계획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캠퍼스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계속 기도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오래 머물고 있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CP에 따르면, 이들의 모임은 주로 BCM, 크루(Cru) 및 '크리스천 스튜던트 펠로우십'(Christian Student Fellowship), '힐뷰 하이츠 처치'(Hillvue Heights Church), '뉴라이프 처치'(New Life Church), '리빙 호프 뱐티스트 처치'(Living Hope Baptist Church) 등이 조직했다.

WKU 시간제 교수이자 Cru 교직원인 토마스 W. 위클리(Thomas W. Weakly)는 2월 12일 에즈베리 예배에 몇 시간 동안 참석했다.

위클리 교수는 "예배는 매우 경건하고, 음악적이고, 질서가 있고, 서로 존중하며, 희망적이었다. 또 기도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스럽게 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2월 16일에는 WKU 학생 3명이 에즈베리 예배당을 찾았고, 이른 아침 돌아오는 길에 공용 캠퍼스의 종교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오전 4시에 돌아온 후, 그들은 바로 WKU 예배당으로 갔다.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밖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또 "예배당은 오전 8시에 문을 열었다. 그들은 기도하러 들어갔고, 오전 10시쯤 일부 학생들이 나타났다. 아마 10명 정도였을 것이다. 오후 1시에는 45명이 모였다. 낮에는 약 90명의 학생들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공립대학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이하 OSU)도 2월 24일 저녁 학생회관 2층에서 예배 모임을 가졌고, 이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소교교회 아론 프라이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2월 17일 에즈베리 모임에 참석한 후, 24일 OSU의 모임에 참석했다. 저와 아내는 최소 15년간 캠퍼스에서 이 학생들과 기도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곳에서 길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 때에 이에 대해 말할 자격이 더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美 펜실베이니아 교육구, 방과후 사탄 동아리 승인 철회

미 펜실베이니아 교육구는 학교위원회의 정책 위반 및 학생·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사탄사원(Satam Temple)이 후원하는 방과후 사탄 동아리의 시설 사용 승인 결정을 번복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레이밸리(Leigh Valley)에 위치한 소콘밸리(Saucon Valley) 교육구의 제이미 블라서티(Jamie Vlasaty) 교육감은 지난 2월 28일 교육구가 받은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이유로 동아리 승인을 철회했다.

이 음성 메일은 교육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그 메시지로 인해 학교는 지난 1일 문을 닫았다.

교육구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교육감의 '월요일 메시지'에 의하면, 음성 메일을 보낸 인물은 노스캐롤라이나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0일 해당 교육구가 사탄 동아리가 지역 중학교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해, 이는 한 주간 논란이 됐다.

레이밸리 뉴스에 따르면, 블라서티 교육감은 24일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방과후 사탄 동아리는 교육위원회 정책 707에 인용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교육구의 교육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한, 외부 기관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블라서티 교육감은 클럽이 어떻게 정책을 위반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 위반 결과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구의 일상 운영에 명백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는 혼란을 겪었다. 학생, 교직원, 교사들은 안전과 복지에 대한 위협을 견뎌야 했다. 불안감, 불안,



방과후 사탄 동아리 로고. ©시애틀 사탄 사원

두려움이 주는 무게는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적이고 증오적이며 분열적인 언어와 행동을 없애고,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난 우리 교육구 내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와 신념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먼저 가정, 지역사회 및 서로 간에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사탄 사원 목사이자 방과 후 사탄 동아리 캠페인의 책임자인 준 에버렛(June Everett)은 레이밸리 뉴스에 별도의 성명을 내고 "펜실베이니아 동아리가 주에서 최초의 동아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버렛은 동아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폭군적 권위"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뉴스에 의하면, 펜실베이니아 교육구의 방과후 사탄 동아리는 3월 8일부터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 동아리를 홍보하는 전단지에는 이 단체가 5~12세 어린이에게 열려 있으며, 허가증만 있으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서티와 사탄사원 모두 CP의 논평 요청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 윌클리프협회, 남아시아 무슬림 국가서 3년 만에 성경 번역

###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료... 하나님께선 신실하셔”



윌클리프협회 로고 © 홈페이지

성경 번역 기관인 윌클리프협회(Wycliffe Association)가 최근 남아시아 무슬림 지역 국가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달 남아시아 지역의 이름 없는 국가에서 최초로 소수민족 언어로 완성된 신약성경을 기념하는 헌정 행사를 열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공식 언어로 된 성경 번역본은 존재했지만, 오지의 소수 언어를 위한 번역본은 없었다.

윌클리프협회의 현장 교육 책임자인 토니 토포니에 따르면, 남아시아에서 번역 프로젝트는 훈련 및 기술 비용에 총 10만 달러를 들여 약 3년 만에 완료됐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 원인은 성경 교육을 받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학자들의 지식 부족 때문은 아니었다”며 “너무 많은 다른 일들로 인해 길을 잃었고 번역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신실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학자들이 번역을 끝내자 모든 사람들은 ‘와, 우리는 그것이 완성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라고 말했다”면서 “작업이나 점검 문제가 아니라, 현지 경찰이 온종일 그들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심문했으며, 수백 명이 참석한 번역본 헌정식도 현장에 나타나 제지했다. 토포니는 “

경찰의 전술은 대개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따로 데려가거나, 의심이 가면 추가 심문을 위해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해당 지역에 대해 “주민 대다수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사방이 종교적 박해에 둘러싸여 있다”며 “강사들은 번역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박해 지역의 수도에서 현지 지도자를 만난다. 그래야 서양인이 방문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협회는 현지 지도자에게 성경 번역에 필요한 기술과 지원 등을 제공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번역 사업에 착수한다. 토포니는 “이 분야의 현지 지도자들을 신뢰하며,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그들의 성경이며 문화다. 현지인이 우리보다 그것을 더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기에,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

윌클리프협회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을 포함해 박해에 직면한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번역을 제공한다. 협회에 속한 강사들은 영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등 보편적인 공용어를 사용해 현지인과 의사소통하며, 노트북 및 번역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제국 OC제국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월-토)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금요성경연구회 월-토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ridge, CA 9130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0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s.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유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7:45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예배(ED)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사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번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 우간다 무슬림, ‘기독교 자선단체’ 위장해 아동 40명 납치



우간다 중부 지역의 무코노(Mukono) 지구에 있는 한 마을. ©Antoine Plüss/ Unsplash.com

우간다에서 자신을 기독교 자선단체의 지도자로 속여 아동 40명을 납치한 무슬림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무슬림인 시라지 사비리(27)는 우간다 북서부 웨스트나일 하위 지역의 아루아에서 장학금을 약속하며 아이들을 호텔로 유인한 뒤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 무장단체에 팔아넘길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일 호텔에서 납치된 기독교인 어린이 40명을 구출했다. 아루아 지역의 목회자는 교인들에게서 한 기독교 단체가 우간다 중부 루웨로 지역의 한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아이들을 등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용의자는 루웨로 인근의 와키소 지역에 거주 중이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목사는 “부모들은 장학금 신청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려 했다. 2월 2일, 한 장로가 웨스트나일 하위 지역의 아루아 마을에 위치한 콘티넨탈 호텔에 교회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 줬다”면서 “전 과정에 내가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염려가 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5세부터 16세 사이의 아이들을 발견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버스가 예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비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무슬림인 것으로 밝혀졌다.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남성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속여서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등록시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는 콩고에 있는 ADF(연합민주군)에

그 아이들을 팔아넘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루아 시위원이며 지역 정부군의 책임자인 엘리스 아켈로는 이 호텔에서 5세쯤 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놀라, 사비리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사비리가 아이들을 루웨로 지역 북쪽에 위치한 알-라흐만 이슬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오랜 심문 끝에, 그런 이름의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아켈로는 와키소 지구에서 우간다 북서쪽으로 약 475km를 이동한 사비리를 체포한 뒤, 아이들을 구출하라고 지시했다. 납치 행위에 가담한 무슬림 여성인 살리마 게리아(28)도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아루아 법원에 출두한 뒤 현재 사비리와 함께 감옥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더 많은 공범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목사는 인터뷰에서 “납치가 성공했다면 교회와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은 매우 참혹했을 것”이라며 “우간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 모두가 어린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번 납치 사건은 모닝스타뉴스가 보도한 우간다의 기독교인 박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다.

우간다의 헌법과 기타 법률은 신앙을 전파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할 권리가 포함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 박해는 계속되고 있다. 우간다에서 이슬람교도는 인구의 12% 이하이며, 주로 동부에 집중돼 있다.

김유진 기자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93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한 새사람의 비전을 품고”

필자는 요즘 “목회자 비전 캠프”의 동원을 위해 여러 목회자와 만나고 있다. 지난 목회 26년을 돌이켜 보면 많은 후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가장 크다. 교회 일을 사명이 아닌 세상 직업처럼 했었구나 하는 자책감까지 든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며칠 전 만난 한 목회자와 대화하는데 그분이 내게 물었다. “목사님이 선교 동원에 힘쓰는 것을 알았는데 온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어 나가면 남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 대답을 못했다. 대화가 토론이 될까 봐 두려웠다. 선교 사명이 개개인의 신학적 견해 차이점으로 치부될까 봐 두려웠다. 그저 그럴리가 있겠냐고 어떻게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겠냐고 궁색한 대답만 하고 헤어졌다. 그의 물음과 태도를 나는 어디서 익숙하게 보아왔다. 그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필자는 과거 내 입으로 뱉었던 수많은 무책임한 발언을 내 귀로 다시 듣게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스럽고, 부끄럽다.

온 성도가 모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언하신 천상의 찬양 예배가 하나님의 비전 아닌가?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한 자들,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 자들, 예수 믿고 평생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던 자들, 후회 없이 남은 생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의 모임이 천상의 예배 아닌가? 에베소서 2:14-19절 말씀에 바울의 비전이 있다.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임신(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다. 그가 전한 성경의 내용은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의 참 말씀이다. 그 바울이 임신의 경지에서 본 천국의 비전이 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 세우신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두신 앗수르와 애굽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세우신 또 하나의 새로운 민족, 그를 예수님은 교회라 하셨다. 바울이 깨달은 비전이다.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개인 구원

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 구원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한 시작점이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그 시작점부터 열방의 영혼들이 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천상의 예배 자리에 나갈 때까지 지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말씀에서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을 나누고 싶다. 특히 영혼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과 나누고 싶다.

필자는 16년 목회한 교회에서 필자의 훈련을 받고 장로가 된 교우에게 선교 비전을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목사님! 그렇게 선교가 좋으면 우리에게 가자 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가세요. 우리가 다 선교 후원 헤드라께요.” 그가 나의 선교 비전이 못마땅하여 비아냥거리듯이 한 말이었으나 필자는 그때 그의 말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할 정도로 울림이 컸다. 그 말이 필자의 선교사로서의 삶에 씨앗처럼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때 나는 선교 비전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비전이었다. 그러기 위해 온 성도가 다시 거듭나서 선교적 성도, 선교적 가정, 선교적 직장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비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다.

필자는 하나님의 큰 구원 비전을 위해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함께 지어질 “한 새 사람”의 꿈을 꾸고 있다. 이 꿈을 같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동지들이 함께 뛰고 있음에 격려와 새 힘을 얻는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비전의 백성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목회자 비전 캠프”를 오늘도 준비하고 있다.

메살린에 살았던 젊은 신사 세바스찬과 젊은 숙녀 비올라는 아주 닮은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너무 닮아서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남매 세바스찬과 비올라는 일리리아 해안에서 풍랑으로 헤어졌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동생 비올라는 선장의 도움으로 일리리아에 정착했습니다.

일리리아의 오시노 공작은 올리비아라는 여인을 연모하였는데 올리비아가 공작의 청혼을 거절하였습니다. 올리비아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부모처럼 자신을 돌봐 준 오빠마저 죽자 아무에게도 맘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올라는 남장을 하고 세사리오라는 가명으로 오시노 공작의 하인으로 일합니다. 공작은 잘생긴 젊은 청년 세사리오(비올라)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두고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세사리오로 변장한 비올라는 오시노 공작의 신뢰를 받는 충직한 시종이 되었습니다.

오시노 공작은 자신의 측근이자 충직한 시종 세사리오에게 올리비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세사리오로 변장한 비올라는 오시노 공작의 마음을 읽으며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노 공작은 남장한 비올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그를 올리비아에게 보내 자신의 맘을 전하게 합니다. 비올라는 괴로워하며 이 심부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공작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던 올리비아가 남장한 세사리오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올리비아가 비천한 세사리오를 사랑하는 것도 이상했고, 자신에게 오시노 공작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인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사리오로 변장한 비올라는 올리비아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비올라는 자신이 혐오하는 오시노 공작에게 ‘더 이상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올리비아의 냉정한 말을 전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오시노 공작은 이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실한 시종 세사리오가 자신의 마음을 올리비아에게 잘 전달할 것이고, 언젠가는 올리비아를 향한 사랑이 결실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한편 익사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바이올라의 오빠 세바스찬은 안토니오 선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난파당해 표류하다가 안토니오 선장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안토니오 선장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 선장은 과거 일리리아에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일리리아에 가서는 안 되는 데도 세바스찬이 원하기에 일리리아로 왔습니다.

안토니오 선장은 일리리아 시내 구경을 원하는 세바스찬에게 자신의 지갑을 주며 맘껏 구경하고 필요한 것은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바스찬이 약속한 시각에 나타나지 않자 안토니오 선장이 세바스찬을 찾아 나섰다. 세바스찬과 똑같이 생긴 비올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비올라가 자신을 모른 체하자 분노하여 덤비다가 신분이 노출되고 옛 죄가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비올라는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체포된 안토니오 선장이 있는데 진짜 세바스찬이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오 선장은 세바스찬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데 올리비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세바스찬을 자신이 만나 왔던 세사리오로 알고 그를 편들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세바스찬은 너무 이상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는 올리비아를 따라 그녀 집으로 갔습니다.

세바스찬은 갑작스럽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여인이 이상했지만, 이 여인의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녀의 사랑 고백도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올리비아는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부하던 세사리오(비올라)가 고분고분 사랑을 받아 주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는 급하게 신부님을 주례로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오시노 공작이 비올라와 함께 올리비아에게 가다가 체포된 안토니오 선장을 만났습니다. 안토니오 선장은 비올라를 보고 또 세바스찬으로 오해하고 배은망덕하며 비난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비올라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올리비아가 나타나 비올라(세사리오)에게 남편이라 부르며 온갖 사랑의 말을 쏟아내며 자신이 세사리오와 결혼했다고 밝히자 공작은 비올라(세사리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때 도시 구경을 나갔던 세바스찬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비올라의 쌍둥이 오빠 세바스찬을 보고 당황하다 그들이 쌍둥이 남매인 것을 알고 그간의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공작은 하인 세사리오가 실은 자기를 사랑해 온 아리따운 여인 비올라란 것을 알고서 올리비아를 세바스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비올라와 결혼합니다.

거칠게 정리한 셰익스피어의 <십이야>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엔 조금 과격적인 남장여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제목 <십이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동원되지만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본래 ‘십이야’는 북유럽에서 크리스마스 12일 후인 1월 6일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을 기뻐하며 갖는 축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바로 이 극을 공연했기 때문에 <십이야>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청춘 남녀가 각각 삶에서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결실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사랑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실망치 않고 사랑하다가 참된 사랑을 만나 사랑을 성취합니다. 모두 현재의 사랑에 충실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결실이 있습니다.

둘째로 모두가 보여주는 위기극복입니다. 풍랑은 셰익스피어가 자주 사용하는 삶의 변수입니다. 세바스찬과 비올라는 풍랑을 만나면서 삶이 곤두박질하지만 극복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풍랑은 위험하지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네 삶도 위기는 고통이지만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ACC 인증.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원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 GRAND OPEN

올코샵 그랜드 오픈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BEST SELLER

##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대한민국 1등 비타민, 75년 신뢰의 건강파트너입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판매점

본 판매처의 제품은 올코샵이 보증하는 100% 정품입니다.

한국인 영양에 딱!!  
식습관이 다르면

###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 9년 연속 대한민국 1등 비타민

### 기초건강 항산화 에너지

##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멜티비타민  
비타민C와 섭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리비스타 종아리 압박밴드

이제 주무르지 마세요

20~30mmHg의 단계적 압박

1+1

- 혈액순환 개선
- 혈류 촉진
- 붓기 완화
- 통증 완화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BEST SELLER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100% 국내생산

두껍고 둔탁하게 입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45 \$38

“바른 자세” 이렇게 쉬웠어?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착용 전 / 착용 후

하나사면 하나공짜

1+1

400 \$199

슈에뜨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세요

### 녹는 콜라겐 마스크팩

슈에뜨에서 공개하는 첫번째 스페셜 아이템

CHOUETTE 3초만에 흡수되는 녹는 마스크 패치로 콜라겐과 비타민 충전!

콜라겐 비타민 패치 이마 타입 / 콜라겐 비타민 패치 눈 타입 / 콜라겐 비타민 패치 볼 타입

초미세 흡수력 3초만에 흡수되는 5만 나노 화이버 패치

식물성 비타민 C 1,000ppm 함유

수용성 콜라겐 99.9%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수용성 콜라겐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기독샵**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www.kidokshop.com

도소매 문의 환영

전화 상담 213-235-6663

KIDOK SHOP

Undergent

RIVISTA

SNOOZY SOCKS

Sulwhasoo

공식판매처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공식판매처 **CHARMZONE NC1**

교회단체 행사선물

도소매 판매점 문의

erom

매장주소

3055W.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강준민 칼럼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말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형통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창 24:12).

엘리에셀이 간구한 은혜는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인의 아들의 신붓감을 순조롭게 만나,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엘리에셀은 그의 기도가 형통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창 24:42-44).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형통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의 신붓감으로 리브가를 선택한 후에 그녀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창 24:56하).

우리는 형통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 성숙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형통한다는 것이 고난이 없거나 고난을 면제받는다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고난 중에도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형통의 비밀을 몇 가지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실 때 그는 형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창 39:2-3).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요셉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사 55:11).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며 지혜의 보고(寶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케 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형통의 지혜를 선물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형통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형통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형통에

대해 예언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사 52:13). 예수님의 형통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과업을 성취하신 형통입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리석으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형통은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형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칼(צָלַח)”입니다. 그 뜻은 “지혜롭게 행하다” 또는 “신중하게 다루다”는 뜻입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히브리 단어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형통을 구하는 것은 곧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 형통케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형통의 은혜는 좋은 만남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느 1:11, 개역한글). 느헤미야는 그에게 맡겨진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형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형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시 118:25). 형통의 은혜를 통해 사명을 잘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수 1:8; 대상 22:11). 성경적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을 위해 최초로 기도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신붓감을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 가서 선택해 오라는 사명을 맡깁니다(창 24:2-4). 사명이란 다른 말로 심부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맡기신 심부름을 잘 완수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진유철 칼럼

먹는 게 남는 것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인사할 때 ‘차 한 잔 하실래요?’, 어른들을 뵈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묻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축구시합 같은 것을 할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은 공이 들어가는 것을 ‘실점했다.(lost)’고 표현하는데, 한국사람들은 ‘골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먹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소재 중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면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가나의 혼인 잔치 집이었습니다. 먹는 음료수가 떨어지자 주님은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 즉 광야의 군중들을 먹이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과 빵을 떼셨고, 갈릴리 바닷가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행위가 바로 성만찬이셨습니다. 평소처럼 제자들과 함께 드시던 식탁의 빵과 포도주를 들어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라고 하시며, 빵을 먹어 육체 안으로 들이는 것처럼 성찬의 예수님을 먹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증거처럼 식탁을 앞에 두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기 전 동행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가족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인생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난 많은 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식사와 국수의 위대함(?)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정성을 느끼며 힐링이 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지역교회를 깨우는 모범된 신앙을 우리 교회 식탁을 통해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만에 그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본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실버드림 대학을 기다리는 이유가 식탁의 사랑과 섬김이 혼담의 외로움을 날려버리는 위로와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수고로 가득한 식탁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칭찬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가득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산수시간,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며, 사과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큰소리로 두 개가 남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황한 선생님이 타이르며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먹으면 세 개가 남아야지’ 하니까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한국 문화와 말에는 먹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213.378.8530/213.674.7476



특별기고

# 미국 감리교 분열 사태 분석



이상운 목사  
감리교미래정책연구원장

별망의 가장한 것이 선 것을...(마 24:15)

미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분열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재산권 연금부담금 청산 등을 조건으로 하는 교단 이탈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세월 진보적인 개신교 가운데 동성애 문제로 분열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3년 여성 동성애자 매리 그래스를 주교로 선임한 성공회를 시작점으로, 2007년에는 미연합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분열하였고, 2009년에는 루터복음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역시 분열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정교회와 남침례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성회와 오순절성령은사주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다. 성경은 동성애는 죄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보고 있다. 평등에 쫓겨 있고 페미니즘 해방신학에서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동성애를 지지한 것은 2015년이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낙태법을 지지하고 있다.

미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분열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세인트루이스 정기총회에서 교단 투표는 전통주의자가 이긴 것으로 나왔지만 진보적인 총감독회의는 동성애를 용납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여기에 반발한 전통주의자들이 반발하면서 교단은 깨지고 말았다. 장정 2553조에 의하여 분열을 허용하고 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한 가족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는 동성결혼이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성경 레위기 신명기에 근거하여 특히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근거하여 반대하고 있다.

건국 초기 감리교는 인종차별 문제로 아프리카 시온감리교회가 분열되어 나간 이후 노예제 문제로 남북으로 감리교회가 분열하였다. 1920년대는 자유감리교회파가 분열하여 나갔고 나자렛교회도 이탈한 바 있다. 감리교는 1738년 5월 25일 웨슬리의 울더스게이트 회

심을 교단의 기원으로 보지만, 사실은 회심 후 1739년에 런던 북부에 있는 페터레인에서 연합신도회가 결성되고 성령세례를 받은 것을 더욱 중시한다. 현대적인 오순절성령은사 체험을 한 것인데 뉴캐슬 업폰 타인에서도 60명의 초창기 신도회 임원들이 집단으로 은사 체험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방언 받고 은사체험하고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영국 성공회 신부로 설교하고 다녔던 웨슬리는 고교회주의(High church,Anglo-catholic)를 신봉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실질적인 신성(Practical Divinity) 체험이 강조된 그의 부흥운동은 서민대중들의 영성이었던 것이다.

지난 1968년 미감리교회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복음형제연합교회와 합동하여 미연합감리교회를 만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채택하면서 현대주의적인 선교정책을 앞세웠다. 에큐메니칼 노선이 분명한 교단의 일원이 된 감리교회는 WCC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성도의 수만 1200만 명이고 교회 수는 4만 5천 개에 달한 미연합감리교회는 미국내 개신교단 가운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단 내 감리교 계통학교 신학교 수만 13개이다. 1920년대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이 일어난 것처럼 복음주의-에큐메니칼 노선이 갈등하였고 70년대에는 조셉 그룹이 등장하여 진보신학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었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든가 사회적 관심이 깊은 사회신경을 채택한 교단답게 긴급구호활동이나 세계선교부의 기층민중들을 향한 선교로 유명한 미연합감리교회는 한국감리교회에도 손을 뻗어 산업선교를 후원해 주고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교회가 목양에 충실하면 동성애 이슈에 연연하지 않는데, 전통주의자들을 제치고 진보진영이 에큐메니컬 노선을 강력하게 밀고 나오자 동성애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교단 내에는 중립파도 있고 점진적인 세력으로 나가는 그룹들이 있어, 전통주의자들의 집합체인 웨슬리안연합회는 대세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교단이 분열이 가시화되자 미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의 불만을 품은 웨슬리안연합회는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이탈세력들 대부분이 주도하는 글로벌감리교회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5월 1일 인디아나에서 공

식적으로 출범한 교단이 현재까지 3천여 감리교회를 흡수하고 기업을 토하고 있는데, 장정의 시한인 2023년 말까지는 5천 개의 교회들이 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던 여성 레즈비언 카렌 올리베토가 감리교 감독이 되었는데, 이번 2022년 11월에도 남성 동성애자 브릿지포트가 감독이 되었다. 장정 위배로 일어난 동성애자 등장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가톨릭의 고위성직자들이 범하였다는 소아성애자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다.

건국 초기 미감리교회는 성공회를 본딴 감독제를 채택하여 제도권 교회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아팔라치안 산맥과 대평원지역에서의 감리교 선교는 서큐트 라이더들의 걸작품이 아닌가 한다. 평균 연령 27세로 순직한 이들 라이더들의 희생으로 감리교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세기부터 감리교회는 중산층화되면서 교역자들은 도시목회에서 성공하면서 개척시대의 옛 모습은 없어져 갔다. 지금은 대략 2천 명에서 3만 명을 헤아리는 대형교회들이 등장하면서 전문화 시대가 열렸다.

감리교 특징은 사회신경을 통하여 선교 이슈와 사회참여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세상의 악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면서 노동인권과 이주자관리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 파괴와 기상징의를 실현하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의 평화를 위한 선교하는 공동체를 구현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과제에 깊이 간여하고자 한다. 의회에서의 입법로비활동과 기독교세계봉사와 감리교긴급구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 미연합감리교회의 문제는 단지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교단 내 헤게모니 쟁탈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쫓겨 있는 문제는 종신감독제이다. 교회의 인사와 재정 등 전반적인 행정처리 문제에 전권을 행사하는 감독제도로는 교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1년 활동경비만 1백만 달러나 지출되는 것부터 10명이 넘는 실무진을 운용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교권은 권위주의가 생명이다. 일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과도한 선교 부담금 문제다. 감독임기를 제한하지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슈들이다. 글로벌감리교회는 선교부담금을 현행 15%선에서 1%선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종신제 감독에 대한 불만이 터져서 감독의 임기를 줄이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이다.

미연합감리교회 감리사는 임기 6년에 연봉이 20만 달러 정도 된다. 열악한 지방교회들의 형편에서 본다면 감리교는 행정관료들의 천국인 셈이다. 보유한 자산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선교환경에서 교역자 파송권을 쥐고 있는 감독과 이를 수행하는 감리사들은 대단한 존재들이다. 한인 교역자가 8백여 명에 이르는 교단 현실에서 보자면, 한인교회는 지금 240여개 밖에 없다. 나머지는 타인종 목회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신학적인 불만이 성경의 권위 문제이지만 내용적으로 따지고 들면 난맥상을 이루는 교회 파송권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이러한 에큐메니칼적인 관성은 결국은 상대주의적 세속화 신학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 철저히 일선 목회에 승부를 걸고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것보다 목회 외적인 조건에 얽매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을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 새롭게 다가오는 교인들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으로 훈련하고 복음의 공동증거를 위한 평신도 양육이 절실한 과제다.

선교하는 전후력이 떨어지고 경건주의가 무력해진 오늘날의 목회 전선에서 영적 다이내믹스를 경험하고 선교적 교회를 일구어내려는 의지와 정책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더군다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지치고 피곤한 주민들과 회중들을 되살리는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언자적 지성이 빛나고 경건의 영성이 폭발하는 남은자 7천명이 절실하다. 다음세대의 역군들인 청년 학생 다음 세대 육성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직면한 미연합감리교회의 분열의 신학적 원인은 1. 성경적 권위를 놓고 전통주의자-자유주의자들의 분열이 있고 2. 미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총감독회와 각국의 위원들 연회의 유지재단 위원들과 실무자들의 책임 있는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다. 3. 장정상 위법 행위인 동성애를 지지하는 문제 4. 작고 연약한 교회들의 부흥문제와 이를 해결하지는 실무자들의 문제 5. 감독의 판단이 독점적인 상황에서 연회의 유지재단이 무기화되어 있는 문제 교회당 폐쇄나 목회자 파송 등에 작용하는 문제 6. 무엇보다 성소 지망생들의 질이 문제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 등이 다 원인인 것이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 서울 (310) 538-3333 | LA (323) 582-2424 | OC (714) 777-7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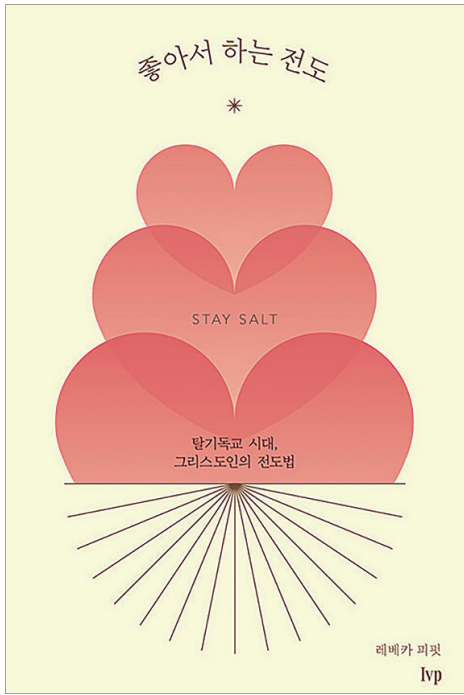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크리스찬북뉴스서평] 탈기독교 시대, 그리스도인의 전도법

# 나는 정말 좋아서 전도하는가?



**좋아서 하는 전도**  
 레베카 피펫 | 이철민 역  
 IVP | 312쪽

**탈기독교 시대, 그리스도인의 전도법**

전도를 좋아서 한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쩌면 나는  
 전도를 좋아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큰바 '문턱을 낮추는' 교회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때 관계전도가 대세라는 평이 있었고, 훨씬 전에는 전도집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많은 회심자를 얻으려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기독교의 기본 전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탈기독교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며 개인의 의견과 느낌을 옳고 그름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사용한다. 전도는 이런 면에서 도전하기 버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레베카 피펫은 낯선 이름 같지만, 2003년 사랑플러스에서 나온 <토마토와 빨간사과>에 이어 IVP에서 각각 2003·2004·2005년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의 길>로 국내 소개된 강연가이자 저술가이다.

이 책에 나온 간증을 통해 알 수 있듯 피펫은 전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일 뿐 아니라 전도가 생활화된 사람이다. 저자는 정말 책 제목처럼 <좋아서 하는 전도>를 실천하고 있다.

그녀는 포스트모던을 지나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대가 더욱 복음이 필요한 세대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더 많은 혼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간절히 평안을 얻기를 갈구한다고 말한다.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생수를 건네는 전도는 풍부한 자원과 분명한 메시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피펫은 1부에서 '자원'을 말한다. 전도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을 자원 삼아 하는 일이 아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이 미련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도의 자원은 바로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준비시켜 주신다. 거절당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거절당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며, 거절이 두려워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이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복음 메시지를 설명한다. 보통 구속사의 줄거리로 창조-타락-구속-완성을 말하는데, 그 관점에 따라 피펫은 창조-타락-십자가-부활-재림으로 구성했다.

책 후반부에서 방법론을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관하여 유익한 조언을 많이 주지만, 분명한 건 복음의 메시지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음을 개조할 수 없다. 더 잘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몇 가지 요소를 누락시킬 수도 없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고 온갖 거짓에 시달린 영혼들에게는 모든 거짓과 확실히 구별되는 참 지혜, 부요한 진리가 필요하다. 저자는 각 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전



저자 레베카 피펫. ©홈페이지

도의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된 진리를 소개한다. 실제 삶에서 변화를 일으킨 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였다.

3부에서 방법을 다룰 때 저자는 롤 모델로 예수님을 꼽는다. 그분이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시고 애정을 쏟으셨다는 점, 지혜로운 질문으로 그 영혼이 방향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고 갈급해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셨다는 점, 일상 대화에서 영적 대화로 지혜롭게 전환하시고,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셨다는 점 등 때문이다.

저자가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 강의실에서 논쟁한 교수님 등 여러 사람들이 그녀의 지혜롭고 애정어린 전도 방법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목적은 영혼을 얻는 것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참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는 영혼에게 내가 참 좋아 하는 예수님, 나를 영원히 만족시키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참 소망에서 멀어져 썩어질 소망만을 붙잡으려고 애쓰다 결국 절망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썩은 세상에서 같이 썩음을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레베카 피펫의 책 <좋아서 하는 전도>의 원 제목처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stay salt). 우리를 살게 하는 참 생명, 참 빛, 참 소금이신 예수님을 좋아서 전하는 자가 되자. 이 책이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하게 하는 자원이 되길 기도한다.

조정목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익 가는 비 같고  
 차신 위익 단비 같도다

신명기 32:2

Let my teaching fall like rain  
 and my words descend like dew,  
 like showers on new grass,  
 like abundant rain on tender plants.  
 DEUTERONOMY 32:2

# 담임목사 청빙 공고

공고일: 2023년 3월 6일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으로 지난 50년 동안 신실하게주님을 섬겨 온 교회로서, 400여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며, 신앙공동체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1032 Manchester Rd. St. Louis, MO 63122  
 http://www.kpcstl.org

### 자격요건 | Qualifications

-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M. Div.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
- 목회 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
- 한국어 설교와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
-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미국에서의 거주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 Requirements

- 이력서, 학력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추천서 2장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Website link도 가능))

### 일반사항 | General

- 모든 서류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청빙이 완료되면 공고를 즉시 마감합니다.
- 서류 제출과 질문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보내실 곳 : [apply.kpcstl@gmail.com](mailto:apply.kpcstl@gmail.com))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연니버스' <정이> (2)

# 넷플릭스 <정이> 속 정신 전송 기술, 내세 대체하나?

최근 제작 정신 전송 관련 콘텐츠, 기독교 영혼 및 내세 이해와 배치 영혼, 고유 존재와 인격 지탱 근거 원본과 복제본 정신, 완전히 달라

### ◆정신 전송 서사의 범람: <정이>에 묘사된 정신 전송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사후 존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이>는 마인드 트랜스퍼, 즉 정신 전송 기술로 죽은 어머니의 인격을 재현하려는 한 컴퓨터 공학자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대중문화계에서 정신 전송 기술과 관련된 서사는 워낙 자주 등장해서, 이제 그리 참신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 이런 동향은 그만큼 최근 영화, 드라마 제작자, 각본가, 감독들, 그리고 영화를 즐기는 대중이 이런 류의 서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신 전송 및 복제에 관련된 서사를 전달하는 작품은 전부 나열하기 힘들만큼 그 수가 많다. <공각기동대>, <채피>, <웨스트월드>, <얼터드 카본>, <레플리카>, <블랙 미러> 시리즈의 에피소드인 <블랙 뮤지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인공지능 기술과 무관하게 정신 전송(혹은 정신 이식)과 관련된 서사를 전달하는 작품도 있다. 뇌이식 수술을 소재로 삼는 영화 <겟 아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정신 전송이라는 소재가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 이 소재가 서구 대중인간 이해와 상상력에 어느 정도 부합해 그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과학기술에 의해 사람의 인격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기독교의 영혼과 내세 개념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



정신 전송 기술로 어머니의 인격을 되살려 내는 일에 몰두하는 컴퓨터 공학자 윤서현(강수연 분).

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인격이 죽은 다음에도 보존돼 다른 몸으로 이식된다는 사상은 서구 대중에게 익숙하게 다가온다. 서구 철학 기반을 다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환생 이론을 굳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물론 플라톤은 인간이 이 땅에 환생한 후 전생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여겼지만, 몸이 죽고 영혼이 해방되어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 이전 모든 생애를 기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한 영혼이 존속하면서 순차적으로 다른 몸에 깃든다는 믿음은 4-5세기경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특히 어거스틴에 의해 맹렬한 지탄을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환생 이론을 이교적 혹은 이단적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플라톤 환생 이론의 잔재가 영지주의 등에 남아, 음지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

오늘날 서구 대중문화 창작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정신 전송 기술을 연상하는 것은 이런 철학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고대 서구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의 힘을 빌려 신비로운 방식으로 보다 젊고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갈아타려는 욕망을 표출했다면, 현대 서구 대중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정신을 옮기고 보존하기를 꿈꾼다.

물론 정신 전송 기술은 아직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 상상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그 누구도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한발 앞서나가 이 기술이 현실화된 상황을 상상하고 정신의 보존과 이식이라는 바람을 대중에게 심어주고 있다.

### ◆정신 전송 서사의 맹점: 과학주의에 경도된 그릇된 인간 이해

이런 바람은 플라톤 철학의 환생 이론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과 분명하게 대치된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일단 원래 몸이 죽으면 영혼도 몸에서 떠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전의 인격이나 기억을 기술적으로 잘 패턴화, 디지털화해 보존하고 재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영혼에 담긴 인격이 아니라 복제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신 전송 기술을 소재로 삼는 대중문화 작품 대다수는 복제된 정신을 마치 정신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묘사한다. <공각기동대>만 보더라도 작품 초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와 정신 전송 기술을 소재로 삼는 영화, <정이>.

반에는 인간으로부터 복제된 정신을 가진 휴머노이드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만, 작품 마지막에는 자신을 복제품이 아닌 고유한 정신으로 인정하면서 결말을 맺는다.

이런 흐름은 이후 정신 전송을 소재로 삼는 작품들의 서사 공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채피>, <웨스트월드>, <얼터드 카본>, <레플리카> 모두 결말부에서 복제, 이식된 정신을 원본과 같은 격을 가진 인격으로 인정하게 된다.

영화 <정이>도 비슷한 서사 공식을 따른다. 작품 중반까지 휴머노이드에 복제된 어머니 윤정이(김현주 분)의 정신은 단지 시물레이션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마지막 결말 장면에서 복제된 정신을 가진 휴머노이드는 정이의 딸 윤서현(강수연 분)을 알아보고 원래 어머니의 인격이 돌아온 것처럼 행동한다.

이처럼 근래 제작되고 있는 정신 전송 관련 영화와 드라마는 모두 다른 몸(혹은 로봇)에 장착된 정신의 복사판을 원래 정신을 그대로 이식한 것처럼 묘사한다. 이런 서사는 기독교의 영혼 및 내세이해에 크게 대치되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친 영혼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인간 뇌신경계 속 전기, 화학 신호에 불과하며, 이 신호를 그대로 본따 패턴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불사(不死)의 삶이라는 생각이 <정이>를 비롯한 정신 전송 소재 작품의 서사에 함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영혼을 단순히 뇌신경계의 물리적 작용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생기(生氣)로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상충된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영혼은 각 사람의 고유한 존재와 인격을 지탱하는 근거로, 결코 복제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정신 전송을 다루는 대중문화 콘텐츠는 이러한 믿음

에 정면 대치되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열중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복제된 정신이 곧 원본의 존속이라는 생각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현대 실존철학과 포스트모던 인간 이해 관점으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각 개인의 삶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실존철학, 그리고 이 실존철학적 신념에 기반해 타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던 인간관은 애초 죽을 너머 인간 인격의 존속이라는 생각을 부정한다.

게다가 실존철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격이 단지 신체의 물리적 작용으로만 이루어진 폐쇄된 의식이 아니라, 세계 및 타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총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한 개인에게 걸려 있는 여러 관계의 그물망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정신 전송 기술이라는 것이 혹 가능해진다고 할 때, 원본의 정신이 원래 신체를 통해 맺고 있던 세계 및 타인과의 관계는 복제된 정신이 새롭게 맺는 주위 세계와의 관계와 그 본모습이 크게 달라지므로, 원본의 정신과 복제된 정신은 결국 서로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이>를 비롯해 근래 자주 발표되는 정신 전송 서사 작품들 속에 담긴 메시지, 즉 기술에 힘입어 복제된 정신이 진화를 통해 원래의 인격과 정신을 세상에 복귀시킨다는 메시지는 기독교적으로 보든 아니면 현대철학의 관점으로 보든, 어느 편으로도 적실하지 않은 과학만능주의적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된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를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목사: 남성수 / CRC 교단)에서는 함께 동역할 유초등부(Elementary) 사역자(Part-time)를 청빙합니다.

- 지원 자격
  1. 유경험자
-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 (신앙간증 / 소명 / 목회경험 / 가족소개)
- 사 례
  1. 사례는 면접 시 안내해드립니다.
- 접수 마감 및 문의
  1. 2023년 4월 8일까지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kcooffice2@gmail.com)
  2. 문의 전화: 714-893-1652(교회 사무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93)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튀르키예 강진 긴급구호  
**무너진 튀르키예,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2월 6일 새벽 규모 7.8의 강진.**

7층짜리 건물도, 사람들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신음과 생사를 모르는 가족을 찾는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튀르키예 곳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사망자 21,000명 (2023년 2월 10일 기준)**

시시각각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최대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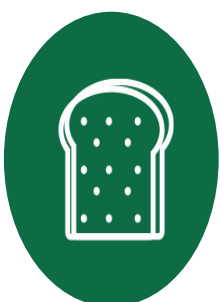


지진으로 무너진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안디옥 개신교회 (기독교감리회)

**지금 돕지 않으면 늦습니다. 튀르키예(터키)를 도와주세요.**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즉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튀르키예·시리아 재난현장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급구호 전담 직원을 파견해 긴급구호 키트 배분을 비롯해, 향후 일상 복귀를 위한 재건을 돕습니다. 미주기아대책(KAFHI)은 기아대책(KFHI), 국제기아대책(FH)과 협력하여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5인 가족  
5일치 식량

**FOOD KIT (식량형키트)**



\$100

5인 가족 피복/  
세면도구 등

**NON-FOOD KIT(비식량형 키트)**



\$200

5인용 안전/  
방한 텐트 지급

**SHELTER KIT(쉘터형 키트)**

송금) Bank: Fifth Third Bank (5/3 Bank) /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l. / Account Number: 7935287420  
 수표) Pay to the order of: KAFHI / Memo: 튀르키예 긴급구호 / 보낼 주소: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연락처) 847 296 4555, 703 473 4696, 이메일 kafhi@fh.org